

# 경계 밖의 ‘성’과 지식 권력의 확장

: 1960년대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 연구

김지영\*

차례

1. 들어가며
2. 풍문으로서의 성 해방과 ‘집 밖’의 성
3. ‘부재하는 실제 찾기’로서의 성 과학과 담론 구조
4. 포르노그래피적 서사와 발화되지 않는 여성성
5. 나오며

## 〈국문초록〉

이 글은 통속오락잡지 『명랑』을 저본으로 하여 섹슈얼리티를 상품화했던 1960년대 옐로 저널의 담론 구조를 살폈다. 1960년대 『명랑』은 불륜, 매매춘, 혼전 및 혼외 관계 등 가족 구조 바깥의 성을 초점화함으로써 성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동질하는 전략을 통해 이윤을 추구했다. 성적 개방성의 징후가 뚜렷했던 서구의 풍토를 적극적으로 실어날랐던 『명랑』은 킨제이 보고서 등 서구의 사례들을 선정적으로 발췌하고 의도적으로 오용하였으며, 구미의 풍속과 한국 사회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성 개방을 보편적 사실로 호도했다. 서구 모델에 의거하여 당대 사회를 성 해방의 사회로 규정했던 『명랑』은 실제 독자층의 성격과 무관하게 남성 지식인이 여성 독자에게 발화하는 교육의 담론형식을 취하면서 여성의 성을 훈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명랑』의 성 과학은 남성의 성을 소유욕이 강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슬픈 본능”으로 규정함으로써 남근적 성 욕망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교수.

의 모순을 ‘자연’으로 정당화했으며, 남근 욕망에 순응해야 하는 성으로 여성의 성을 교육함으로써 성차를 위계화하는 지식권력의 통제를 가족 제도 외부에까지 확장했다. 이와 같은 담론 구조 속에서 『명랑』의 성 과학은 근육의 수축과 팽창의 단계에까지 섹슈얼리티를 탐색함으로써 성의 실재를 보고야 말겠다는 포르노그래피적 욕망을 가속화했다. 매매춘 지대의 삶을 조명했던 『명랑』의 여성 수기들은 여성의 욕망을 타락과 결합하는 동질적 회로 속에 유사한 스토리들을 반복했다. 편집자적 윤색의 흔적이 뚜렷한 이 수기들은, 남성의 호기심과 욕망을 조장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고안된 시선의 배치 속에서 진행되었다. 삽화들은 남성의 욕망을 도발하면서도 그 욕망에 순종하는 존재로 보일 수 있도록 정교하게 여성의 육체와 시선을 배치하였으며,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서사는 혼외 관계의 장면을 확대함으로써 성적 대리만족의 기능을 수행했다. 남성의 죄의식을 상쇄하면서 쾌락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질적인 서사구조 속에서 『명랑』의 여성 수기들은 근대를 구성하는 지식 권력의 통제범위를 확장하는 데 복무했다. 섹슈얼리티의 범람과 과잉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자세하게 조명될수록 타자화되고 사물화되었다. 성이 더 말해지고 탐구될수록 여성의 진정한 경험과 욕망은 오히려 더 깊숙이 가려지고 침묵해야 했다.

핵심어 : 『명랑』, 대중, 섹슈얼리티, 성 담론, 옐로 저널, 여성성, 체험 수기, 성 과학, 1960년대, 근대성, 성 역할, 페미니즘.

## 1. 들어가며

1960년대는 연애의 자유가 성 역할 분립의식과 더불어 보편화되고, 위계적인 성 역할 속에 근대 가족의 이념이 재확립되어 생활의 한 중심을 형성했던 시기였다. 낭만적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성, 사랑, 결혼

을 하나의 관계 안에 일치시키고 공사영역의 구분을 남녀의 구분 속에 재현한 근대적 가족상은 군사정권이 주도했던 개발의 압력과 효율적으로 접속했다. 경제개발과 빈곤탈출, 그리고 조국 근대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국가적 목표는 사랑,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 또한 국가발전 기획의 내부로 견인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근대 가족은 전통 윤리를 재호명함으로써 관용과 희생정신으로 무장하고 가정을 주관하는 지혜로운 주부상으로 이상적 여성상을 정체화했다. 과거의 윤리를 다시 호출하고 위계적 성역할을 재현함으로써 보수화된 가족 이념은 개발 근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적인 욕망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사적인 삶과 공적인 개발을 갈등 없이 통합하는 가부장적 근대화 체제를 완성했다.<sup>1)</sup> 그리하여 경제개발과 민족 정체성 확립, 반공주의라는 정권의 정치적 구호는 통행금지나 향토예비군 창설과 같은 사회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적 규율 문화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한편에서, 성, 사랑, 결혼이라는 개인적 삶의 영역 또한 균질화된 구조와 체제로 압박해 갔다.

그러나 1960년대는 보수화된 가족 이데올로기의 이면에서 성을 사고파는 음성적 성 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이 급증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남녀의 본원적 관계로서 '성'을 가정생활의 필요조건으로 바라보는 성 과학 담론이 공적 담론의 하나로 크게 확장되었고, 출산과 산아제한을 비롯한 행복한 가정의 요건으로 지혜로운 성 생활이 강조되기도 했다. 1950년대가 '연애' 대중화의 시기였다면, 1960년대는 주부담론, 가족담론의 이면에서 섹슈얼리티 담론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사회에서 성에 대한 언급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연애'라는 어휘가 수입되고 그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부터 이미 성은 사랑의 한 부면으로서 담론의 일부에 조심스레 등장했다.

1) 1960년대 지배적인 가족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1960년대 『여원』의 연애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2017, 57-104쪽.

‘연애’를 정신적 사랑이 아니라 성욕의 발현으로 이해하는 언급들이 제기된 것은 물론, 성 과학과 관련된 일본의 수입 서적들이 학생층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다.<sup>2)</sup> 청소년의 성에 대한 교육적 기사나 동성애에 관한 주의들도 미디어의 지면에 간혹 오르내리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적이거나 기사들은 어디까지나 지엽적인 것으로, 담론의 주변부에서 지극히 간헐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유입된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섹슈얼리티 담론은 조금씩 본격화된다. 1948년 미국에서 킨제이의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래, 부부생활의 성 문제에 대한 담론은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조금씩 등장했다. 1955년 창간된 『여원』과 같은 여성지들은 이 같은 담론을 실어나르는 유력한 매체였다. 1950년대 후반 『여원』은 연애부터 결혼, 부부생활까지를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다룬 유스테이스 챗서 박사의 『두려움 없는 사랑』 시리즈를 1년 가까이 연재하는 등 섹슈얼리티의 ‘과학’적 안내에 앞장섰다. 이와 더불어 『명랑』, 『아리랑』과 같은 황색 저널은 섹슈얼리티를 노출하는 소설,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미국 여배우들의 육체를 해부한 기사들, 서양의 섹슈얼리티 유머를 본 딴 성적 유머와 만화들은 이 잡지들의 단골 기사들이었다.<sup>3)</sup> 이러한 기사들은 대부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언술의 지배 아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삶에 대한 질타의 관점에서 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로써 1950년대 황색 저널은 혼외 성 욕망과 같은 일탈적 욕망을 방전하고 해소하는 자정작용의 역할을 가장했다. 이 시기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논의는 어디까지나 연애담론의 하위 담론으로서, 연애결혼이라는 근대적 결혼과 윤리적인 가족생활을 촉구하는 논지를 보조하는 보족물의 역할을 수행했던 셈이다.

1960년대 섹슈얼리티 담론은 그 강도와 노출의 정도가 한층 강화되고

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2 참조.

3) 1950년대 『명랑』의 성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 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012.12, 173-206쪽.

본격화되었다. 『명랑』, 『아리랑』 등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1960년대 중반부터 그 노출과 묘사의 정도가 확연하게 과감하고 집요해졌다. 잡지의 편집 체계에서도, 섹슈얼리티 논의가 잡지의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부각되어 양적으로도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헤드라인과 제목들의 선정성도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표현의 수위에서는 거의 해부학에 가까울 정도로 직접적인 묘사가 강화되었다. 기사를 진행하는 관점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같이 가족 규범과 윤리의 가면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제한을 이탈하거나 비껴가는 시각들이 투입하기 시작했다. 건전한 가정과 가족 윤리가 강조되고 통행금지와 같은 통제 문화가 제도화된 시대 구조의 한편에서,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혼외 관계에서 순수를 발견하는 역설적 언술을 등장시켰고, 가정의 경계 밖에서 벌어지는 음성적인 성 문화의 범람을 가시화했으며 이를 대중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1960년대 중반의 한 신문 칼럼은 “일반 시민 대중은 거의가 예로 잡지에 빠지고 있다.”<sup>4)</sup>고 단언했는데, 이와 같은 진단은 오락지가 노출했던 황색화의 정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섹스 인포메이션을 제일 많이 얻은 것이 잡지라는 통계”<sup>5)</sup>가 증언하듯, 이 시기 잡지는 대중이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대면하는 가장 유력한 매체였다.<sup>6)</sup>

잡지가 음란한 기사와 이야기로 사회 풍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는 1960년대 신문 지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들이다.<sup>7)</sup>

4) 『한국의 숙제(4) 外刊物 정책』, 『경향신문』, 1965.1.27.

5) “어떤 대학의 한 조사에서 섹스 인포메이션을 제일 많이 얻은 것이 잡지라는 통계”, 『매스-미디어 협조 제 3분과』, 『동아일보』, 1966.7.14., 5면.

6) 기실 1960년대는 라디오와 대중잡지의 시대로 불릴 만큼 잡지 매체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였다. TV수상기가 아직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 뉴스와 오락거리를 제공했던 라디오와 더불어 잡지는 지식 전파와 담론 생산의 측면에서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매개 기능을 담당했다.

7) 오락지의 통속성에 대한 비판은 1950년대에도 있었지만 1960년대에는 자못 심각해진다. 참고로 다음의 기사들은 1950년대 잡지의 음란, 윤락의 측면을 비판하는 사례들이다. 『어로잡지 단속하라』 『동아일보』, 1954.3.21., 3면.; 『사회 풍기 순화는 「악서」 驅逐부터』, 『경향신문』, 1957.5.29. 2면.; “대중잡지의 삼분지이를 차지하는 소설의 대부분은 관능적인 면만을 건드려서 (...) 음란, 윤락의 편모를 그리”

대중잡지가 “사회풍속을 해치고 윤리관을 해이하게 하는 데 부채질”<sup>8)</sup> 한 다거나, “고답 아니면 저속한 도색판”<sup>9)</sup>으로 가득하다는 비판은 이 시기 오락지가 노출했던 황색화의 정도를 잘 알려 준다. “전후 일본의 대중잡지가 걸어온 『뒷골목』을 그대로 본 따서” 진행된 일종의 시대적 유행으로 “에로” 기사가 비등한다거나,<sup>10)</sup> “섹스 범람으로 혼미 상태”에 접어든 문화가 커머셜리즘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sup>11)</sup> 곳곳에서 대두했다. 서점가에서는 노골적인 섹스 이야기를 한 책들일수록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린다고 증언했고, 신문의 연재소설은 지식 불개 부끄러울 정도로 『에로틱』하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곤 했다.<sup>12)</sup> “대중문화”라고 하면 “소비적 오락과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생각”<sup>13)</sup>하는 풍토가 발생한 것은 이처럼 황색 잡지와 에로틱한 이야기들의 범람이 가져온 결과였다. 중도적인 오락 교양지가 없었던 1960년대 사회에서 오락 잡지는 대중문화를 ‘에로’와 직결시키는 사고 풍토를 조성한 주범이었다. 1969년 서울대 4.19탑 광장에서 대대적인 『에로』 규탄 대회가 열리고, 불량만화와 에로 책들을 소각하는 불매운동이 선언되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풍토에 대한 반향이었다.<sup>14)</sup> 청년 지식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대대적인 불매운동에 나설 정도로 1960년대의 에로를 범람은 그 정도가 자못 심각했으며 그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가뻐지 않았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1960-70년대는 ‘대중’과 ‘대중문화’가 중요한 기표

고 있다. 『문학과 대중』, 『경향신문』, 1958.11.17, 4면.

8) 『한국의 숙제(4) 外刊物 정책』, 『경향신문』, 1965.1.27.

9) 『여성, 오락, 아동물 판저』, 『경향신문』, 1967.11.4.

10) 『한파에 아랑곳없이 (5) 새벽 5시의 생활전선』, 『매일경제』 1967.12.20., 3면

11) 『문화, 섹스 범람으로 혼미 상태, 『커머셜리즘』에 가치관도 잃어』, 『매일경제』, 1970.8.15.

12) 조용만, 『악서의 폐절』, 『동아일보』, 1963.12.7.

13) 이 글은 대중문화의 내용 경신과 그를 바라보는 태도의 재고하여 그 다양한 가능성을 계발하고 긍정적 활용을 강조한다. 『대중문화의 자세』, 『동아일보』, 1970.1.8.

14) 『방중환 섹스는 윤리 매몰』, 서울대서 『에로』 규탄대회, 『경향신문』, 1969.6.10. ; 『불량만화·에로책 소각』, 『동아일보』, 1969.6.10.

로 사람들의 의식에 부상하고 문화론의 지향과 논의의 주체가 지식인이거나 엘리트에서 대중에게로 넘어간 시기였다.<sup>15)</sup>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대중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통속적인 오락 잡지의 실패는 이처럼 집단적 주체로서 성격화되어 가던 대중들의 생활 속에 음성적인 섹슈얼리티 문화가 범람했던 시대적 정황을 보여 준다. 잡지의 이 같은 황색화는 자본 확보와 경영 안정화가 쉽지 않았던<sup>16)</sup> 당시 출판 환경 속에서 오락지가 저속성과 상업주의로 돌파구를 찾았던 결과인 동시에, 음성적 세계의 은밀한 탐닉을 통해 경직된 체제의 압박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고자 했던 대중적 욕망의 결과였다.

이 글은 이처럼 강도 높게 변화한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이 1960년대의 지배적 가족 담론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가에 관심을 갖는다.<sup>17)</sup> 1960년대 대중들이 이해하고 공유했던 음성적 섹슈얼리티의 담론은 낭만적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립되었던 보수화된 가족 이념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것은 누구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어떠한 의식구조를 형성하고 진행되었는가. 그것은 기존의 젠더의식과 어떻게 관련 맺었으며, 어떠한 젠더 이해를 생산하는 데 기여했는가.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이 글이 저본으로 삼은 것은 통속오락잡지 『명

15)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호, 2011, 189쪽.

16) 임유경, 『지식인과 잡지 문화』, 김성보 외 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60년대』, 창비, 2016, 105쪽.

17) 1960년대의 옐로 잡지의 섹슈얼리티 담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드물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여성 담론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여원』, 『주부생활』과 같은 여성잡지를 중심으로 탐구가 이루어졌다. 여성문학학회에서 출간한 『여원연구』(2008)를 비롯하여, 김은실(1999), 장미경(2007), 김예림(2007), 최경희(2015, 2016) 등의 논의는 근대성이 젠더의 문제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밝혀낸 의미 있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근대화, 반전통화, 재전통화의 기초 아래 한국의 근대 담론이 어떻게 근대적 성별 분업체계를 형성해 왔는지를 밝혔으며, 그것이 여성 젠더에 대해 어떠한 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는지를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또, 『선데이 서울』을 연구한 임종수, 박세현의 연구(2013)는 『명랑』의 후신으로서 1970년대 여성 섹슈얼리티가 논의되고 언급된 양상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랑』이다.<sup>18)</sup> 『명랑』은 1950-60년대를 대표하는 통속오락잡지이다. 1967년의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 동년 9월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 잡지는 모두 209종 213만 7천부였다. 이 중 10만부 이상을 발간하는 잡지로는 『여원』, 『주부생활』, 『새농민』 등 3-4종이었고, 잡지의 인기 순위도 여성지, 오락지, 아동지 순이었는데, 여성지가 호화판 사치판이었다면, 오락지, 대중지는 에로틱한 황색 기사 일색이었다.<sup>19)</sup> 『명랑』은 에로틱한 황색성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대표적 잡지로 『아리랑』, 『실화』 등과 더불어 가장 잘 팔리는 오락지의 하나였다. 발간 당시부터 7S(Sex, Stage, Screen, Star, Story, Sports, Studio) 정책을 표방했던 『명랑』은 4.19 직후 3-4년간 정화의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으나 1970년대 폐간에 이르기까지성을 상품화하는 편집 전략을 중점화하는 기조를 채택했던 잡지였다.

1960년대 가장 많이 팔렸던 옐로 저널의 하나로서 『명랑』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당대 세속 사회의 의식과 정향성을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은 1960년대 이 잡지에 실렸던 성 칼럼과 성 과학 기사 그리고 수기들이다. 칼럼과 과학 기사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편집진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면, 수기는 그와 같은 시각이 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18) 잡지 『명랑』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195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소설, 독자란 등의 분석(최예순 2013, 김현주 2013, 김연숙 2016)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1950년대 성 담론을 다룬 김지영(2012)의 연구는 『명랑』의 기사와 화보, 유머란이 여성을 어떻게 대상화하며 불평등한 젠더 체제 속에 섹슈얼리티의 음성적 방전 공간을 형성했는지를 밝힘으로써 이 연구의 선행 시기를 다루었으며, 따라서 시대별 연속성과 차이점을 가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또 김지영(2016), 이주라(2018)의 연구는 명랑소설에 착안하여, 각각 명랑소설의 스토리 구조 변화과정과 할리퀸 스토리의 전신을 구성하는 하이틴 소설의 이야기구조 형성과정을 밝힘으로써 1960년대 『명랑』을 가늠해보는 데 도움을 준다.

19) 『여성, 오락, 아동물 판저』, 『경향신문』, 1967.11.4.



## 2. 풍문으로서의 성 해방과 '집 밖'의 성

4.19를 전후하여 민중의 비판의식이 도드라지고 부정부패의 척결과 사회 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1960년대 초반, 라디오, 오락지와 같은 대중 미디어들은 이전의 분방함에서 벗어나 건전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7S 정책으로 철저히 오락잡지임을 표방하며 출발했던 『명랑』에서 또한 1960년대 초반에는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특집들이 출현한다. [가정의 민주혁명] (1960.8), [즐거워라 老小同席] (1960.10), [내가 내 직업을 말한다] (1960.11), [주부가 할 수 있는 부업 안내] (1961.2)와 같은 1960년대 초반의 특집들은 [스타: 연애한다 결혼한다] (1958.8), [현대 애정 카루테] (1959.1)와 같이 연애 풍토나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과거의 특집과는 사뭇 달라진 잡지의 시각을 보여 준다. 사랑과 결혼에 관련한 기사 또한 「새 시대의 결혼관」(1960.9), 「새 살림을 위한 가정설계」(1960.10), 「경제적으로 본 현대인의 결혼」(1960.12), 「사춘기 자녀교도는 이렇게」(1960.12)와 같이 건전한 기사들이 두드러진다. 「결혼 없는 이혼」(1959.2), 「밤마다 부르는 비련의 노래」(1959.3), 「깨어진 사랑의 거울」(1959.4) 등 선정적인 제목들을 박스화하여 앞세웠던 과거의 편집방침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건전성을 앞세웠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4.19 이후의 짧은 정화 기간을 거치면서도 성과 연애의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명랑』은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이전보다 한층 강렬하고 원색적인 방식으로 선정적 기사의 강도를 강화했다. 「스타의 섹스 채점표」(1965), 「여관문 틈으로 본 애욕 백태」(1965)와 같은 원색적 타이틀로 목차가 채워지기 시작했고,<sup>20)</sup> Sex를 제목으로 앞세운 연재물, 매대

20) 1965년 7월호 『명랑』의 주요 기사 목록은 원색화된 잡지의 편집 방향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다음은 그 목록이다: 「스타의 섹스 채점표」/ 특집 「5개월생 접대부 라오」/ 「가수 백남영을 죽게 한 제 삼의 사나이」/ 「스타 태현실양의 연애사건 폭로」/ 「(스타 탐방) 달디단 사랑의 보금자리」/ 「처녀총각스타가 말하는 결혼상대

춘가의 여성들을 조명하는 특집들이 기획되었다. 수기는 윤락 여성들의 과거사나 타락, 치정의 문제를 다룬 사연들이 부각되었고, 소설에서는 일회적이거나 변태적인 성 관계나 성적 호기심에서 발발하는 사건들을 다룬 스토리가 중심을 이루게 된다.<sup>21)</sup>

이처럼 다시 강화된 1960년대 『명랑』의 섹슈얼리티 관련 기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 해방’이라는 어휘의 잦은 노출이다. 『명랑』은 1960년대 전체에 걸쳐 ‘성 해방’의 트렌드를 역설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다.

육체가 감정보다 앞서고 있는 「신연애론」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육체주의 연애관은 이 시대의 사조요, 사상이다. (...) 스피드한 연애관, 여기선 보다 행동이, 육체가, 몸부림치는 젊은 정령이 육체에, 피에, 교류되지 않고는 못 배긴다.<sup>22)</sup>

성의 수레는 거침없이 내닫고 있다. 소년이 노파를 윤간하고 중년이 소녀를 능욕하는 일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지 오래다. (...) 개방된 성 광장에는 온갖 「섹스」가 난무하고 전라에 가까운 몸뚱아리들은 행인을 유혹한다. 현대인의 성 감각은 고전미를 상실한지 오래며 성급하고 복잡한 것이다.<sup>23)</sup>

---

자」/ 「여관문 틈으로 본 애욕 백태」/ 「고백적 수기, 나는 호색가 스킨노 대통령의 제삼부인」/ 「천재 화가 피카소는 변태 성욕자」/ 「100호 씨리즈, 연애백경 2, 사랑이 끝날 때까지」/ 「고백적 수기소설, 끝나지 않은 삼각관계」

21) 1960년대 명랑의 소설 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지영, 「‘명랑성’의 문화적 변이와 문화정치학」, 『어문논집』 78, 2016.12, 217-268쪽.

22) 「연애에서 결혼까지의 안내서」, 『명랑』, 1961.3, 196-198쪽. 이 기사는 전쟁, 이데올로기 혼란 등이 연애관의 혼란을 빚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연애가 결혼을 위한 행진곡임을 설명하면서도 다소 회의적인 뉘앙스를 드러낸다.

23) 한소면, 「성지식은 현대를 괴롭힌다」, 1961.2, 162-164쪽. 이 기사는 과잉된 성지식에서 오는 현대인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대의 고민이라는 논조로 진행된다.

성의 변천만큼 변화가 잦은 것도 드물다. 어떤 여성이든지 요즘은 자기 스스로가 여성이란 것을 자각하고 있다. 아무리 순진한 처녀들이라도 에로소설을 안 읽는 사람은 없다. 또 십육, 십팔 세쯤 된 소녀들마저 웬만한 산부인과 의사 뺨칠 정도로 성지식에 밝다. (...) 처녀들이 매춘부 못지않게 몸을 흔들며 거리를 누비는 것을 보면 웬만한 남자들은 거뜬히 뇌살시킬 것 같다. 새로운 도덕이 점차 우리네 주변에 침투해 온다. 성적 매력이 없는 딸을 두고 걱정하는 부모까지 생겼다. (...) 섹스가 해방되어 그것을 향락해도 좋다는 사상이 보급되는 건 좋으나, 요즘은 그 도수가 너무 지나쳐 중증의 성병에 걸린 감이 없지 않다.<sup>24)</sup>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도 그 개념만은 변하고 있는 현대인의 가슴. 사랑의 순결이 차츰 더럽혀지고 있는 현실. 정신적인 사랑만은 무언가 허전하고 모자라는 느낌을 불만처럼 갖고 있는 현대 젊은이의 애정론이라면 누구 반박할 사람이 있는가?<sup>25)</sup>

각각 1961년, 1966년, 1970년에 발표된 위 기사들은 한결같이 당대를 심각한 성 개방의 시대로 진단하고 무분별한 성의 풍토를 성토한다. ‘개방된 성의 광장’, ‘섹스의 해방’, ‘성지식의 범람’, ‘정신적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상’ 등의 사회 진단을 통해 이와 같은 기사들은 당대 사회를 성 개방 사회로 규정한다. 심각한 성 개방 사회라는 현실 진단에 기반을 두고, 문화 변화에 적합한 ‘올바른’ 연애법과 부부생활의 태도 등을 제안하는 것이 이 기사들의 담론 전략이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성 개방의

24) 『리레이 집필, 부부생활 리포트』, 『명랑』, 1966.4, 214쪽. 이 글은 여성의 성 욕망이 남편을 괴롭힌다, 주부의 성욕 과잉은 남편을 노이로제로 만든다고 보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기는 필연이며, 이 때는 아내가 싫증나고 필히 매춘부의 몸이 좋다는 것을 자연스런 것으로 기술한다. 여기에 따르면 권태기는 남편의 성숙의 길이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바람은 경계하면서, 여자는 가정에 돌아가야 하며 진실한 애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25) 『달라진 남과여, 그 신 연애전법』, 『명랑』, 1970.5, 106-115쪽.

풍토를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간주하는 경향은 짙어진다.

그러나 기사들이 진단하는 것과 같이 당대 한국 사회가 실제로 성 해방의 사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 시기 여성지 『여원』의 경우는, 4.19 전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1960년대 전체에 걸쳐 정신적 이해와 희생을 강조하는 숭고한 사랑의 이념이 지배적이었다. 『여원』은 성적 순결과 자발적인 이해에 기초한 결혼을 토대로, 남편을 내조하기 위한 아내의 각종 경제적, 물질적 지혜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집중했다. 성에 대한 언급들이 개선되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에 대한 내조의 일부이자 아내에게 주어진 임무의 일환으로 강조될 뿐이었다.<sup>26)</sup>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내”<sup>27)</sup>라는 motto 아래, 가족 내에서 주어지는 여성의 성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기 『여원』을 지배하는 중심 관념이었으며, 이 잡지의 발행부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념은 당대 사회의 지배적 통념을 형성해 갔다고 할 수 있다.

『명랑』의 성 해방론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경향이 강했다. 성 해방의 풍문은 구미의 성 문화에 대한 달뜬 증언, 해방 후부터 유입된 미군과 양공주 문화, 이로 인한 아프레 담론과 자유부인 담론이 만들어낸 고안물이었다.

다른 어떤 잡지보다도 『명랑』은 외국의 성 문화를 전달하는 데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미국남녀의 생활과 취미』(1961.4), 『성의 모험』(1965.3), 『10대 탐구: 청춘향연』(1966.10), 『10대 성혁명은 어디까지 왔나?』(1966.6), 『하쓰지마 매춘천국을 중심으로: 매춘은 필요악인가』(1967.2), 『비틀거리는 청춘 삼족의 삼태』(1969.1), 『체험 트뽀, 남편과 아내와 타인: 세계적 선풍 속의 미국의 성생활』(1971.6), 『사건 속에 휩쓸린 세계 유일의 사랑의 학교』(1971.1) 등은 해외의 성 풍속을 집중 보도하는 기사들이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네킹, 페팅, 스와핑, 바이섹슈얼, 스테디 등 구미의 낯선 성 생활 용어들을 유입시키면서 이질적인 성 문화에 대

26) 『여원』의 성 담론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여성문학연구회, 앞의 책. ;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여성문학연구』, 2017.10, 57-104쪽.  
27) 오화섭, 『현대여성론 노트10 : 여성, 사랑의 고행자』, 『여원』, 1965.2, 94-99쪽.

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을 유포하면서 『명랑』은 대학가의 개방적 기숙사 문화, 외도를 통한 결혼 위기 극복법, 히피와 같은 저항적 자유 지향 집단, 거대 집창촌과 환락문화 등 생경한 성 풍속을 실어날랐다. 이 같은 이질적 문화에 대한 보도들은 그레타 가르보의 키스법<sup>28)</sup>, 마릴린 몬로의 향수 사용법<sup>29)</sup>과 같이 외국 여배우들의 섹슈얼리티를 성교육의 모델로 이용하는 상업적 전략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 성의 자유 문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 아무런 충격 없이 적용되고 있다.”<sup>30)</sup>라거나, “열 사람의 남편 가운데 다섯 사람 이상이 아내 이외의 딴 여성과 바람을 피우거나 깊은 관계에 빠져 있는 것”<sup>31)</sup>과 같은 언급들은 이처럼 구미의 성 풍속을 보도하는 데서 일차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랑』은 구미의 풍속과 한국 사회의 경계를 모호하게 흐리면서 의도적 오용이나 발체를 통해 성 개방을 현재적 사실로 호도했다.

킨제이 보고서에 대한 『명랑』의 보도는<sup>32)</sup> 이 같은 의도적인 오용의 사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 기사의 전반부에 설명하는 ‘킨제이 보고서 2’의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성은 의외로 늦게 개화하며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 혼전 관계를 갖는 여자가 50%가 되나, 대부분이 결혼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졌으며, 부정한 아내(41%)의 반수가 한 남자와 그것도 매우 적은 횟수로 부정을 경험한다. 이 부정의 대다수 경우는 난잡한 남자가 곁에서 부추기기 때문이다. 또, 여성은 성적인 불만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매우 적고, 성행위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28) 『SEX 성문제 응접실 : 여성전과, 키스의 효능』, 『명랑』, 1967.1, 216-219쪽.

29) 『섹스와 행복론 : 당신의 밤과 사랑을 위하여』, 『명랑』, 1967.8, 271-273쪽.

30) 실제 이 기사는 미국의 성 풍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오늘날 성의 자유 문제는 평범한 것이 되어 아무런 충격 없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남성과 반수 이상의 여성은 결혼 전 육체관계를 맺었다고 여러 보고서는 말한다.” 『10대 성혁명은 어디까지 왔나?』 『명랑』, 1966.6, 176-180쪽.

31) 『SEX 남편의 바람기 발견법』, 『명랑』, 1966.12, 232-237쪽.

32) 김용규, 『킨제이 보고서에 이상 있다.』, 『명랑』, 1961.3, 136-139쪽.

조사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자란 『고요한 성』<sup>33)</sup>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기사의 후반부에서 글의 필자는 『코스모폴리탄』지에 실린 ‘암람 샤인펠드 씨’의 언급에 의거하여 킨제이의 결론을 반박한다.

이 반박에 따르면 킨제이의 결론은 조사된 표본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를 통한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의심해야 할 사실들로 발췌된 내용은 “『우리들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 중의 50% 가까운 여자는 결혼 전에 처녀성을 잃고 있었다』라든가, 『기혼여자의 26% 이상이 40세까지에 간통의 경험을 가졌다』든가 하는 말<sup>34)</sup>들이다. 즉 혼전 관계의 상대자가 대부분 결혼할 대상이었다든가, 기혼여성의 간통 경험이 특정한 1인에 제한되며 그 횟수도 극히 적다는 부분 등은 생략한 채, 혼전순결 상실의 통계, 간통 여성의 통계 수치만이 발췌되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부분적 발췌는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뛰어넘어 성 개방의 풍문을 증명하는 강조의 기능을 수행했다. 결론적 언술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를 지닌다.

순결이라는 것도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이 많을 경우도 흔히 있다든가 결혼 전의 『성』 관계가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결혼생활이라든가 심리학적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기 쉽다든가 (….) 하는 여러 가지 결론을 읽을 때 극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 『성』의 감흥을 가장 많이 가져본 여자들이 그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다든가 혹은 크라이막스의 빈번도와 결혼의 영속성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sup>35)</sup>

33) 김웅규, 위의 글, 137쪽.

34) 같은 글, 138쪽.

35) 같은 글, 138-139쪽.

기사의 결말은 킨제이의 결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주장 속에서 부각되어 드러나는 것은, 순결도 해로울 수 있다, 혼전 성관계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성 경험이 많은 여자가 더 행복하다, 크라이막스의 경험이 결혼의 영속성을 돕는다와 같은 선정적인 진술들이다. 최종적인 결론과 달리, 기사는 성의 욕망을 자극하고 성 개방의 풍조를 기정사실화하는 언급들을 전경화하면서 선정적인 상상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경향으로 봐서 확실히 결혼 전 성교에 대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거나,<sup>36)</sup> “성의 자유의 끝없는 확대가 섹스로부터 신비성을 빼앗아 버리고, 정신적 결합 없는 성적기교나 실험만을 일삼”<sup>37)</sup>는다는 시대 진단은 이 같은 선별적 이해와 의도적 오용의 결과였다.

선정적인 필터를 통해 과장된 서구의 풍조는, 그것이 근대화의 모델로서 갈망하던 사회의 현상이며 진보된 사회 연구의 결과라는 가정된 우월성의 압력에 힘입어,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에도 손쉽게 적용되었다. 그 결과 『명랑』의 성 해방론은 동 시기 『여원』의 성 담론과 매우 다른 논의 구조를 갖게 된다. 『여원』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혼외 관계를 경계하기 위해 개방적 성 풍조에 대한 담론이 동원되었다. 물론 1960년대 후반에는 숭고한 사랑의 담론에 저항하는 문제의식을 서서히 드러내기도 했지만,<sup>38)</sup>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부수적인 정도였다. 이와 달리 『여원』의 그것보다 더욱 과격하고 과장된 형태로 전개되었던 『명랑』의 성 해방론은 여성의 성을 초점화하고 여성 섹슈얼리티의 개방을 은근히 재촉하는 논조와 더불어 진행된다. 현대 사회의 분위기가 개방성을 지향하니 진정한 사랑을 하는 여성이라면 그와 같은 개방된 문화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그것이다.

36) 노덕삼, 『독신 남성의 섹스에 대한 일곱가지 Why』, 『명랑』, 1967.6.

37) 박석규, 『체험 르포르: 남편과 아내와 타인 - 세계적 섹스 속의 미국의 성생활』, 『명랑』, 1971.6, 135쪽.

38) 김지영, 앞의 논문 참조.

다음 기사들에서 성 해방의 풍조는 성 관계를 위해 여성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교육하고, 혼외 관계의 순정을 상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현대는 성 해방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의 수줍음은 부덕이라고까지 생각하기 이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 심리와 욕망에 대한 연구는 분명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따라야 할 <성의 아름다운 일면>에 대한 배려는 잊혀져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특점은 성생활에 있어서 ① Before play(前戲)와 의상과 몸짓의 미묘한 관계, ② 화장, 조명, 성감의 연관성 ③ 소리와 냄새의 효과 - 이렇게 세 개의 텔리카시를 추구해 보려는 것입니다.<sup>39)</sup>

엄연히 법률상의 부인이 있는데도 그 남자에게 순정을 바치고 가슴을 기대 오는 미모의 지성치녀들, 속되고 손 이익을 따지자면 손해 보는 여자 쪽.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손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 순정을 다 쏟아버린다. 그건 곧 사랑의 진실이요 어떠한 비난도 거기에 부어져서는 안 될 줄로 본다. 비도덕적이니, 윤리성에 어긋났느니 이론적으론 얼마든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 자세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순하고 승고한 가집새.<sup>40)</sup>

성의 자유가 위험한 면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 성의 자유화로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처럼 인정이 메마른 개인주의 나라에서, 가정과 직장을 왕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묻혀 있던 사람들이, 성의 교류가 큰 것이다.”<sup>41)</sup>

수줍음을 극복하는 성 행동을 요구하며, 불륜 속에서 순정을 찾고, 성

39) 『리레이 집필: 부부생활 어드바이스 3』, 『명랑』, 1966.5, 210쪽.

40) 『달라진 남과 여, 그 신 연애전법』, 『명랑』, 1970.5, 114쪽.

41) 박석규, 앞의 글, 135쪽.



자유화의 이점을 강조하는 논리들은 혼인관계의 외부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탐닉하고자 했던 남성 욕망의 알리바이로 활용된다. 성 해방의 풍문이 국가주의적 가족 윤리의 바깥, 즉 가족 경계 외부의 섹슈얼리티를 정당화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기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명랑』은 이처럼 『여원』의 그것과 같은 주류 담론의 외부에서 근대라는 지식 권력이 강제하는 규범의 제한 너머를 타고 흐르는 잉여의 욕망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유도했다. 사회의 음성적인 영역에서 '집 밖'의 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역으로, '집 안'의 성이 고정된 역할 분립 속에 특정한 방식으로 강제되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는 국가가 지휘하는 개발 내셔널리즘의 강력한 주도 아래, 낭만적 사랑의 이념과 성역할 분립의 논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강조되었던 시대였다.

이 같은 시대의 강박은 역으로 규범 외부의 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촉진했다. 모범적 가족에 대한 국가 사회의 강력한 압박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상품으로 만들고, 규범 외부에 존재하는 잉여의 성을 산업화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집 안의 성이 숭고한 역할과 고상한 규범 속에 강조될 때, 규격화된 규범 외부에 존재하거나 규범 내부로 제어되지 않는 욕망들이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의 산업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여성을 탈성화된 어머니로 간주할수록 남성은 가정 안에서의 성이 아닌 외부의 성을 찾아 헤매는 정당성을 부여” 받았다.<sup>42)</sup>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집창촌이 공공연히 용인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집 밖'의 성을 용인하고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가정과 직장을 왕복하는 단조로운 생활에 묻혀 있던 사람들”의 “매마른 인정”에 대한 보충<sup>43)</sup>이라는 명분은 이념적 제도가 채우지 못하는 잉여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집 밖'의 성을 용인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낭만적이고 숭고한 사랑에 기초한 가족의 이념이 제도화되고 공고화될수록 '집 밖'

42) 임중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집, 103쪽.

43) 박석규, 같은 곳.

의 성에 대한 탐닉이 가속화되는 이윤배반 속에서 황색 저널은 기만적인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처럼 경계 밖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이 격증하는 현상이 국가 주도적 개발독재와 군사주의적 문화가 박차를 가하게 된 맹렬한 산업화와 통제 문화의 시작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명랑』의 재 원색화가 가속화된 것은 1964-1965년 한일 굴욕 외교에 저항하며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가 비상계엄령을 비롯한 인혁당 사건, 휴교 조치 등 일련의 강제적 압박 하에 저지되고, ‘조국 근대화’의 기치 아래 강력한 국가 주도적 개발주의가 시작된 것과 같은 시기였다. 제도 밖의 성을 탐닉하는 문화의 성장은 개발독재의 가속화와 맥을 같이 하는 파생물의 하나였으며, 표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 없게 된 대중의 선택이기도 했다. 정치적 발언이 억제되고 개인의 삶이 국가주의적 이념의 압력 하에 동질적인 방식으로 규율화되는 사회에서, 경계 밖의 섹슈얼리티는 대중들이 제도가 부과하는 통제의 압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작은 이탈의 공간이자 균열된 틈으로 기능했다. 개발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국가 담론이 산업화의 역군으로 남성 주체를 호명하는 한편에서, 그와 같은 산업화에 동반되는 피로를 해소하고 방전할 수 있는 음성적 수단으로 섹슈얼리티 문화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불륜 속에서 순정을’ 찾는 심리는 역으로, 윤리 안에 얼마 불순한 것들이 스며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의식, 무의식적 자각의 단면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여기에 성 해방의 풍문은 서구 모델의 권위를 등에 업은 또 하나의 허상으로 작용하면서 사실 이전의 사실로서 현대성의 감각을 조성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구성된 감각들은 체제 내적 지식권력의 통제를 위협하고 넘어서기보다는 오히려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 장에 보겠지만, 『명랑』은 성의 자유와 쾌락을 긍정하고 역설하면서도 이 자유를 어디까지나 남성 욕망을 위해 배치함으로써 ‘집 안’의 성과 같은 성역할의 위계를 오히려 더 미세한 부면에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 3. '부재하는 실재 찾기'로서의 성 과학과 담론 구조

『명랑』은 발간 당시부터 성 과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창간 당시부터 『명랑』은 독자 상담실란을 운영하면서 특히 성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는 의학적 답변들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sup>44)</sup> 성지식을 체험 소설의 형식으로 개진하는 독특한 란으로서 성의학 소설란이 마련되어 임상경험자가 집필을 담당하기도 했다.<sup>45)</sup>

1960년대에는 잡지의 관심사가 연애에서 결혼으로 옮겨가면서 성 과학적 지식들이 더욱 범람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 『연애 강좌』, 『연애 에치켈』 등의 제목으로 각종 연애의 기술과 방법을 안내하던 『명랑』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연애’로부터 ‘결혼’으로 초점을 이동했다. 목차 내에 “주부들 차지”라는 면을 따로 구성하는 편집방식이 등장했으며, 『주부교실』(1961.3), 『부부휴전안』(1961.4), 『명랑 싸롱으로 오세요 아르케드리쵸: 결혼 씨이즌을 위한 결혼 수첩』(1961.10), 『신혼기에 알아둘 지식』(1964.1), 『초산부가 알아 둘 예비지식』(1964.1), 『부부생활의 지혜』(1964.1) 등과 같이 주부를 위한 지식정보란의 지면을 늘여 갔다. ‘연애’로부터 ‘결혼’으로의 초점 이동은 ‘성’과 관련된 기사와 지식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편집방침이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 중반에는 ‘섹스’라는 어휘가 전면화되고 노골적으로 남녀의 성 관계를 초점화한 기사들이 전폭적으로 늘어난다. 『리레이 집필-부부생활 리포르트』(1966), 『SEX 성문제 응접실』(1966-1967) 등의 연속기사가 진행되었으며, 『섹스가 연애는 아니다』(1965.8), 『간통백경』(1966.1), 『십대 성 혁명은 어디까지 왔나?』(1966.7), 『독신 남성의 섹』

44) 1950년대 『명랑』의 성 상담란에 대해서는 김지영의 다음 논문 참조. 김지영,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 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2012.12, 173-206쪽.

45) 『명랑』의 성의학소설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13.12, 83-116쪽.

스에 대한 일곱 가지 Why」(1967.6), 「섹스와 행복론: 당신의 밤과 사랑을 위하여」(1967.6) 등등 섹슈얼리티를 표제로 한 제목의 기사들이 전면화된다. 또, <책 속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잡지 내부에 작은 판형의 기사들을 별도로 편집해 넣는 독특한 기법을 사용하여, 성 지식을 전달하는 기사들을 변별화하기도 했다. 「사춘기의 마음」, 「사춘기의 의학」, 「결혼」과 같은 타이틀을 단 이란의 기사들은 찢어 내기 쉽게 별도로 편집되어 잡지 가운데 붙여졌다. 독자가 따로 떼어내어 보관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으로서, 책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작은 판형으로 더욱 변별하기 쉽게 포장된 성 과학 기사들은 잡지가 전파하는 성 담론의 사회적 존재방식을 문자 그대로 가시화했다.

성 과학 기사들은 성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관능적 쾌락이나 ‘섹스’의 추구는 누구나 지닌 본성이며 특권”<sup>46)</sup>이라는 것, “부부간 서로 잘 이해하고 연구해서 성생활의 참다운 기쁨을 개척해”<sup>47)</sup> 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사들의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다. 성의 향락이 생활 활력의 원천을 이룬다는 생각은 성 과학 기사들의 저변을 이룬다. 다음의 기술은 이 같은 담론의 정향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락으로서의 성교가 완전하고 알맞은 경우는 생활 에너지의 원천이 될 것이므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명랑하게 활동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의가 있는 일에 정진할 수 있게 된다.<sup>48)</sup>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성 과학 기사들은 성 행위의 방법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1950년대의 『명랑』이 복상사, 양성애와 같은 비밀상적 성 행동을 자주 언급했다면,<sup>49)</sup> 1960년대의 『명랑』은 넥킹, 페

46) 『키스전과: 달콤한 사랑의 입맞춤에』, 명랑, 1968.10, 74쪽.

47) 『SEX: 성문제 응접실 여성전과 : 결합예의 준비』, 명랑, 1967.4.

48) 『SEX: 성문제 응접실 여성전과 : 원만한 부부생활』, 명랑, 1967.5, 234쪽.

49) 김지영, 앞의 논문(2012) 참조.

팅, 섹스와 같은 외래어를 동원하여 성 행위의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교육'적 태도를 취했다.<sup>50)</sup> 성을 학습하는 주요 매체가 잡지라는 통제는 이 같은 잡지의 경향성에 말미암는 결과였다.

성 과학은 단순히 성 행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 행위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많은 기사가, 본능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남성의 욕망과 성 행위의 주동성을 역설하는 데 열을 올렸다.

여자는 한 남자를 참되게 사랑하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스스로를 잊을 정도지만, 남자는 진실한 애정을 기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빈틈을 남겨둡니다. (...) 그러므로 사랑이 모든 것을 잊게 한다는 말은 남성에게는 좀 무리하다는 것입니다. (...) 남자들은 자기들의 연애 도중에는 성관계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결혼상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상대방의 처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남자란 일반적으로 처녀성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sup>51)</sup>

전에는 푸라토니크 러브의 경우가 많았다. 육체적이 아닌 순결한 사랑, 즉 정신적 연애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비련으로 끝났다. 그러나 요즘의 경우 대개 육체적인 교섭을 갖는 모양이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현명한 방법일지 모른다. 여자에 대한 정복욕은 남자의 본능이다.<sup>52)</sup>

50) 예컨대 '페팅'을 안내하는 기사는 "남녀가 성기의 결합 대신 질의 사정을 피하고 이 준비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행함으로써 성욕이 타오르는 것을 즐기는 일을 페팅이라고 한다."는 정의 하에, 페팅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고 결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결혼생활의 건실한 기초를 닦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장려할 성질의 것이라는 언술을 진행한다. 『SEX: 성문제 응접실, 여성전과, 성분능과 페팅』, 명랑, 1967.3.

51) 『여자가 알아들 남자의 마음』, 1964.2, 224-225쪽.

52) 이인석, 『연애백경 : 정신적인 연애와 육체적인 연애』, 명랑, 1965.6.

남성은 성의 본질상 성욕처리를 해야 하는 생물이다. (...) 남성은 ‘체내에서 지나치게 만들어진 정자를 체외에 배설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하는 생리 현상을 증대로 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버린다. (...) 애정 없이 섹스를 행사하는 것을 이상하고 부도덕하다 여기는 여성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남성의 성과 애정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남성의 성의 욕망의 심층에는 지배욕이라는 욕망이 무의식 속에 움적어서 처녀인 여성과 성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에는 처녀에 한한다’고 하는 풍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sup>53)</sup>

남녀의 양성을 본능의 차원에서 구분하는 논법은 성 과학 담론이 즐겨 채택하는 논의방식이었다. 여성의 성을 수동적, 남성의 성을 적극적, 능동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논법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이라는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구별하는 확고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명랑』의 성 과학은 남성의 성이 지닌 이기심과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남성의 호기심이나 정복욕, 외도의 욕구, 연애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성교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여성에게는 순결을 요구하는 모순과 자가당착이 남성의 “슬픈 본질”이자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당화되었다. ‘무의식’과 ‘본성’이라는 인지 이전의 세계가 과학의 외피를 입고 불평등한 관계 구도를 합리화하는 데 유감없이 활용되었던 것이다.

과학을 가장한 논의 안에는 폐병을 앓는 남자는 성 욕망이 더 강하다거나, 채찍질로 성감을 높이는 남편의 욕망에도 아내의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sup>54)</sup> 식의 부조리한 주장들도 제기되곤 했다. 과학이라는 권위는 일상의 상식과 경험적 논리를 뛰어넘는 울타리의 역할을 수행했고, 여성

53) 노덕삼, 『독신남성의 섹스에 대한 일곱가지 Why』, 명랑, 1967.7, 145-147쪽.

54) 한국남, 신현탁, 이호림, 『성문제 상담실 : SEX 흔들리는 안방의 고민 8』, 『명랑』, 1967.6, 264쪽.

의 성은 어디까지나 남성의 성을 수용하기 위해 조정되고 조율되어야 했다.

위계적 성 역할은 담론 구성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남녀의 성차를 강조하고 남성의 이기심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섹슈얼리티 담론들은 대부분 우월한 남성 지식인이 무지한 여성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과 계몽의 구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 구조는 잡지 독자층의 실제와는 사뭇 달랐다.

『명랑』의 독자는 남성이 많았다. 창간호부터 1960년 10월호까지 『명랑』의 애정상담실에 문의한 투고자들의 분포를 보면 18-30세 미혼 청년들이 많았으며, 남녀의 비율이 3:2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sup>55)</sup> 남성의 직업은 군인, 대학생, 직장인 순으로 분포되었고, 여성은 고졸 미혼여성이 대부분이고, 이어 여고생, 미망인 등이 분포되었다. 고민 상담이 학생, 여성 등 취약층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던 관습을 고려하면, 성인 남성 상담자의 비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같은 분포도는 실제 독자 중 남성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분포는 1960년대에도 계속된다. 일례로 1965년 1월에 『명랑』의 펜팔란에 해당하는 「애독자 살롱」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분포를 통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10대	20대	30대	군인	학생	회사원	농업	기타
남	11	33	1	16	10	4	2	5
녀	11	14	1	0	13	5	0	2

전체 등록자 중 45명이 남성, 26명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성 이름들이 명단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 펜팔 희망자는 잡지가 독자 유입을 위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투입해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자의 경우, 군인의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학생과 회사원 순이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55) 김지영, 앞의 글(2012) 참조.

남성의 경우 상업, 교직 등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양재, 가정교사 등이었으며, 무직도 제법 있었다. 연령은 남녀 모두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였다. 펜팔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 같은 분포도는 실제 독자층의 얼굴을 짐작하게 해 준다.

송은영은 1960-70년대 대중문화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 당시 언론은 황색 잡지의 구독자를 주부, 학생, 저임금 노동자 등 하층민으로 상정하고 그들의 교양 교육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진단과 달리 실제로 이런 잡지를 읽고 즐긴 사람 중에는 남성 지식인 계층들이 더 많았음을 논구한 바 있다.<sup>56)</sup> 황색 잡지의 독자층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중심이었으며, 그 가운데는 도시 셀러리맨과 학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 인층이 상당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량』의 펜팔란에 드러나는 남녀 비율이나 학력 수준과 상통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독자층과 달리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지면들이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황색 저널의 독자층이 여성, 학생, 저임금 노동자라고 규정했던 저 대대 지식인들의 논법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열등한 대상으로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의 전유물을 검토한다는 우월한 위치를 점함으로써 섹슈얼리티 탐닉에 대한 죄의식을 상쇄하는 전략이다. 독자를 여성으로 상정하는 담론 전략은, 외적으로 주어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손상하지 않고, 성에 대한 앎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채, 섹슈얼리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성의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이 같은 가장(假裝)의 형식은 남성 주체가 자신을 섹슈얼리티 공유자의 세계에 노출하는 부담감을 피하는 한편, 훔쳐보기라는 은밀한 방식의 향유를 통해 직접적인 노출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은근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를 통해 남성 주체는 행동하고 참여

---

56) 송은영, 앞의 논문.



하는 자가 아니라, 바라보고 판단하는 주체로서 자신을 정향하며 섹슈얼리티의 원색지대를 탐닉할 수 있었다. 남성 지식인이 여성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 담론 구조를 통해 '정상/남성/지식인/청장년' 주체는 스스로가 쓰레기고 저질이라고 생각하는 세계를 즐길 수 있는 알리바이를 형성했던 것이다.

교육적 담론 구조는 또한 남근적 중심 안에 행위의 규준을 마련했다. 생물학적 '본성'이라는 권위 아래 남성의 욕망은 정복적, 이기적, 자기본위적 욕망으로 규정되었다. '집 안'과 '집 밖'을 횡단하는 이 '본성'의 '과학'은 혼전 관계나 외도에 대한 남성의 욕구를 부정할 수 없는 '자연'으로 용인했다. 따라서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슬픈 본질"에 순응하고 대처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했다. 처녀성에 대한 남성의 모순적 욕망은 당위였으며, 이 당위의 명령 앞에서 여성의 성은 순응하고 적응해야 했다. 따라서 결혼한 여성은 혼인 유지와 자녀 생산을 위해 남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성 행동을 학습해야 했고, 미혼의 여성은 처녀성이라는 결혼의 조건과 혼전 관계를 욕망하는 남성의 욕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어야 했다. 남근의 명령 아래 여성의 성을 전유하고 전횡하는 이 같은 '소유'의 논리는 '집 안'의 논리와 동일한 위계를 '집 밖'의 영역에서도 반복했다. 남성과 여성의 성 행동은 '집 밖'의 세계에서도 이분법적으로 '본질화'되었으며, 여성들은 결핍이자 부재로 상정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남성 욕망에 맞추어 개발하고 조정해야 했다.

남녀의 성을 위계화하는 동일성의 순환고리 위에서 교육적 가장(假裝)을 통해 포장된 성 과학은 196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상세한 해부학적으로 묘사의 세계로 진전되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명랑』의 성 과학 지면들이 담아내는 성 묘사는 성기 부분만을 확대 촬영하는 포르노적 묘사의 차원으로 치닫는다.

남성 성기를 질에 삽입하는 행위. 남녀간 허리를 움직여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하는 것. 그 두 사람의 쾌감이 점점 커지다가 마침내 긴장감이 극한

에 달해 해방되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 이의 목적은 두 남녀가 오르가즘에 달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성적 부조화라고 함.<sup>57)</sup>

오르가즘이란 직접적인 성기결합 모든 성적 자극에 의해서 도달하는 절정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극치감은 생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느끼는 경험이며 생리적으로는 성적 자극을 받아 혈관이 충혈되고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부터 풀려나오는 반응인 단속적 경련입니다. ① 생리적인 면에서 볼 때 정신근육의 긴장으로 얼굴이 찌푸러지고 팔 다리 근육의 수축으로 저절로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극치감이 절정에 이르면 자궁구의 이동과 좌우로 흔드는 운동 혹은 상하운동, 자궁구의 큰 폐쇄운동, 정액을 흡수하는 자궁구의 펌프작용, 남자 음경과 자궁구와의 밀접한 연쇄 개구작용 등이 나타납니다. ②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정신적으로 오는 극치감의 과정은 다음 세 가지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단계는 무엇이 계속되다가 멈춰지고 그쳐버리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제2단계가 시작됩니다. 제 2단계에서는 화끈하고 더운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 듭니다. 제3단계에서는 질이나 골반하부가 저절로 오무라드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때 골반이 떨리는 감이 듭니다.<sup>58)</sup>

첫 번째 인용은 원만한 부부생활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로, 남녀의 성행위를 성기결합의 형태로 자세히 설명한다. 성행위의 단계를 정신적 사전 준비 단계, 육체적 사전 준비 단계, 본 행위, 결말로 나누고 있는 이 칼럼은 성 행위의 점진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절정의 순간과 정리과정까지 시간적 순서대로 진술하여, 한 편의 포르노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이러한 과정 설명은 신혼부부의 초야에 대해 안내하는 전 월호의 동일란(『SEX 성문제 응접실 여성전과: 결합에의 준비』, 『명랑』, 1967.4)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된 내용이다.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57) 『SEX 성문제 응접실, 여성전과 : 원만한 부부생활』, 『명랑』, 1967.5, 235쪽.

58) 『밤을 울리는 사연들 - 성의 바른 가르침』, 명랑, 1971.3, 184-185쪽.

서 전달하는 기사의 구성은 실제로 이 같은 기사의 목적이 지식 전달보다 욕망의 충동에 가까웠음을 확인해 준다.

성 관계와 성 행위에 대한 세밀한 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정교하고 세밀해졌다. 1971년에 실린 두 번째 인용에서 인간의 육체는 혈관, 근육, 음경, 자궁, 자궁구, 골반 등으로 자세하게 분절되고 해부된다. 1967년의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면서도 해부학적으로 더욱 상세해진 묘사는 더 이상 온전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 기관으로 인간을 낱알이 해체하고 있다.

이처럼 신체를 해부하고 해체하는 수준으로 치닫는 상세한 묘사를 통해, 기사들은 성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했다. 김종갑에 따르면, “성의 실체를 보고야 말겠다는 욕망”<sup>59)</sup>은 근대의 발명이자 후유증이다. 정체성의 위기에 처한 현대인들은 성을 통해서, 특히 과잉 성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포르노적 섹스는 잃어버렸다고 가정되는 진정한 자신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현실의 부재 즉, 현실의 결핍감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되찾으려는 욕망에 젖어 있는 것이다. 포르노에 빠진 남성들은 여자의 배후에서 진짜 여자를 찾아내려고 욕망한다. 욕망하고 유혹하는 여자의 쾌락, 이 쾌락의 진정한 정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같은 욕망은 인위적인 연기가 가능한 여성의 표정이나 태도의 수준에서 더욱 깊이 들어가 불수의근의 단계, 연기가 불가능한 무의식의 단계로 내려간다. 성기의 수축과 팽창의 장면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관과 근육의 확대가 진실을 알려 주지 않음은 물론이다.<sup>60)</sup>

결국 이 같은 소급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진정한 성의 실체가 아니라 주체의 욕망일 뿐이다. 그리고 이 욕망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산업 전사들의 도피의식과 보상심리의 결과물이었다.

59) 김종갑, 『실체를 향한 열정으로서의 포르노』, 몸문화연구소 편, 『포르노 이슈』, 2013. 96-120쪽.

60) 김종갑, 위의 글 참조.

(가) 남자들은 한결같이 성적 향락주의자다. (...) 남성들은 누구나 극단의 에고이스트다. 특히 남성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밖에 나가서는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불만도 가정에서만은 이루어보려는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모르리라.<sup>61)</sup>

(나) 더러는 애정 모럴이 소멸되어 간다고 한숨을 짓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어한 고뇌는 어쩔 수 없게 사랑이라는 굴레 속으로 그 피로한 자세를 숨겨버리려 드는지 모른다. 위험함을 예상하면서 몰입해드는 감정, 권태로운 생활에서의 짜증 같은 것에서 도피하고 보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서 싹터난다.<sup>62)</sup>

(가)에서 정비석은 남성들의 성적 향락주의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피로와 스트레스의 반영이라고 역설한다. 가족 임금을 받고 가정의 수입을 책임져야 하는 남성들의 성 역할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막중한 피로감이 가정에서의 보상과 음성적인 성적 향락 욕망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같은 태도는 “권태로운 생활에서의 짜증 같은 것에서 도피하고 보는 마음”, “현대인의 분출구를 찾지 못하는 고뇌”가 “사랑이라는 굴레 속으로 그 피로한 자세를 숨겨버리려 드는” 남성 욕망의 근원이라고 진단하는 (나)의 언설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사랑이라는 맥락과 인간 생활의 경험 연관을 해체하고 순수한 근육과 살의 세계로 이입하는 해부학으로의 경사는 이처럼 현실의 세계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남성들의 자아 상실에 대한 반응의 한 양상이었다. 기실 해부되는 육체 속에는 긴장과 흥분보다 혐오감이 더할 수 있었지만, 존재의 목적을 지시하는 나침반이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낯선 ‘자유’의 세계에서, 외적으로 주어지는 근대화, 산업화의 강제는 이처럼 ‘본능’이라는 이름의 ‘자연’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몸짓을 가속화했다. 그

61) 정비석, 『여자는 남자를 모른다』, 『명랑』, 1961.12, 127-131쪽.

62) 『달라진 남과여, 그 신 연애전법』, 『명랑』, 1970.5, 115쪽.

안에서 욕망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존재의 시계는 계속해서 '더욱 더'라는 욕망의 형식으로 가속화의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일방적 욕망의 회로 속에서 여성의 성은 해부되고 파헤쳐질수록 더욱 사물화되고 타자화된다. 남근 중심적 행위 규범 속에 성 과학이 여성의 육체를 탐사하면 할수록,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결핍이나 부재, 혹은 열등한 것으로 강제되어 갔으며, 여성은 스스로의 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했다.

성의 실재에 대한 탐닉은 이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철저히 타자화함으로써 근대 가족을 구성한 위계와 구조를 음성적이고 비공식적 영역으로 확장했다. 한 쪽의 성이 왜곡되고 침묵하는 구조 위에서 '목적 없는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결핍과 더불어 존재하고자 하는 의식'<sup>63)</sup>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차이와 구별을 통해 질서를 구축하는 근대적 동일성의 체제는 이처럼 음성적인 담론의 영역을 통해 오히려 공고하게 강화되어 갔다.

#### 4. 포르노그래피적 서사와 발화되지 않는 여성성

명랑의 수기들은 실질적인 체험의 장으로서 현실의 내밀한 삶을 들여다본다는 판타지를 제공한다. 1960년대 초반의 수기들은 남녀 비중이 3:7 정도로 게재되었으며, 다채로운 사회 역정을 실어날랐다. 혼외 연애, 외도, 첫사랑 등과 같은 사랑의 수기가 다수였으나, 직장 여성의 생활이나 전쟁 체험, 청춘시절의 방랑, 투병기 등 다양한 삶의 경험들도 '수기'의 이름으로 지면에 올랐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명랑』의 수기는 섹슈얼리티에 노골적으로 초점을 맞춘 여성 고백 일색으로 변화한

63) 김종갑은 앞의 글에서 “현대인에게 참된 진정성은 스스로 소유한 적이 없었던 실재의 상실을 슬퍼하는 향수의 자세가 아니라 실재의 결핍과 더불어 존재하는 자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갑, 앞의 글, 120쪽 참고.

다. 수기가 가장 많이 실렸던 권호에 해당하는 1961년 11월호와 1965년 6월호의 수기 차이는 이 같은 편집방침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월	저자	성별	제 목	중심 내용
1961. 11.	최명숙	여	나를 그냥 옮겨 놔 두라	유부남과 사랑, 파탄
	최숙자	여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	도시 상경 후 유린과 타락의 길
	김찬숙	여	그와 내가 겪은 악몽	남편의 외도 알고 자신도 외도하려다가 함께 화해
	공순임	여	내 순정은 버스에 싣고	버스 안내양의 일상
	최사회	여	어느 노 여기자의 청춘 회상	여기자의 영웅담 회고
	황규득	남	야간열차 차장의 이야기 들어 보소	야간열차에서 벌어진 각종 에피소드
1965. 6.	오상만	남	병역 기피자의 수기: 나는 전직 사무관, 기피자였소	생활고와 병역 기피의 내역
	윤정순	여	여관 문틈으로 본 애육 백태	여관 종업원의 손님 관찰기
	박승희	여	울며 삼킨 첫사랑	고등학교 때 알던 남자와 관계 후, 타락의 길
	황인자	여	여자만이 받아야 하는가	직장이 필요해 다방 취업, 돈이 필요해 희롱을 건디는 생활
	송희란	여	의부에 유린당한 복수로	의부에게 강간당하고 상경하여 댄스홀 무희가 되고 여러 남자를 전전
	김혜숙	여	벌레 먹은 육체	방을 부수고 들어온 대학생에게 강간당하고 가짜 대학생 노릇, 배우 지망 하다가 사창가로 전락
이호림	여 (대필)	끝나지 않은 삼각관계	친구가 사귀던 남자를 좋아하여 육체 관계를 맺고 버림받음	

선정성이 강화된 1960년대 중반의 수기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은 매매춘 여성들의 체험기였다. [수기 특집: 사랑 따라 구름 따라 - 명동을 주름잡던 매담족, 그들이 겪고 보아온 남성관?] (1965.6), [특별 고백 수기 특집: 오개월생 접대부라오] (1965.7)와 같은 제목으로 기획된 특집들은 접대부나 매매춘 여성들의 체험담을 집중적으로 실었다. 매매춘 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도한 유부녀의 고백, 순결을 잃고 방황하게 된 미혼 여성들의 심경 등등 1960년대 중반 이후 수기는 대체로 ‘집 밖’의

성을 그리는 데 골몰했다.

그런데 섹슈얼리티가 강화된 『명랑』의 수기들은 대부분 비슷한 스토리 라인을 갖춘 균질적인 사연을 들려준다. 수기의 여성들은 다양한 출신과 환경을 지녔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체험의 과정을 거치고 유사한 감정 상태를 드러냈다. 『명랑』의 수기들이 피력하는 기본적 스토리 라인은 다음과 같다.<sup>64)</sup>

1. 여자들은 대체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처녀거나, 평범한 주부로 산 인물들이다.
  2. 최초의 강간(혹은 불륜)으로 여자들은 망가진다.
  3. 강간한 남자에 대해서는 직업과 나이, 행동만 알려진다.
  4. 강간당한 여자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집을 떠난다.
  5. 여자들을 희롱하는 다른 남자가 따라 붙고 여자는 더 망가진다.
  6. 여자들은 자포자기가 되어 아무 남자나 만나고 동거하고 헤어진다.
  7. 많은 여자들이 육체의 기쁨을 알고, 그런 기쁨에 빠져드는 자기를 좋지 않게 인식한다.
  8. 여자들은 스스로를 천시하고 저주하는 상태로 나아간다.
- 보론1. 여자들을 우롱하고 배신한 남자의 뒷이야기는 거의 없다. 남자는 폭력자의 기능만 한다.

64) 여기에 제시된 기본 스토리 구조를 따르는 수기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경우에 따라 타락생활을 전전하던 여인은 구원의 남성을 만나기도 한다. : 구경희, 『사련수기, 사랑하다 흐느끼는 지어미 예 있다』(1961.10) ; 최숙자,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1961.11) ; 황경순, 『기도 속에 머무는 사랑』(1964.1) ; 홍영미, 『변화가 될 뻔한 어느 여인상』(1967.6) ; 주애리, 『명동 지붕 밑의 매담』(1965.6) ; 박승희, 『울며 삼킨 첫사랑』(1967.7) ; 황인자, 『여자만이 받아야 하는가』(1967.7) ; 송희란, 『의부에 유린 당한 복수로』(1967.7) ; 김혜숙(홍등가 창녀), 『벌레 먹은 육체』(1967.7) ; 주명훈, 『그 얼굴에 침을 뱉아라』(1966.1) ; 한미정, 『더러운 얼굴로 돌아 보라』(1966.1) ; 김은주, 『그대 가고 입술은 불탄다 - 처녀성을 잃은 그녀의 수기』(1968.5) ; 박정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 버린 여인의 체험기, 그 옷에 침을 뱉어라』(1972.12)

보문2. 스토리는 사건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강간 등 최초 관계의 장면에는 상세한 묘사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 묘사에서 많은 경우 남성은 행위하고 여성은 느낀다.

1970년대를 풍미한 영화 『별들의 고향』의 원작소설을 묶어 낸 단행본의 서문에서, 작가 최인호는, 신문 연재를 희망했던 병아리 작가 시절, 연재 안을 요청하는 편집진을 위해 주인공 경아(스토리 구상에서는 승혜였다고 한다)의 일생을 단 한 순간에 모조리 개괄해 썼고, 그것으로 단박에 편집진의 연재 결정을 받았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65)</sup> 첫 사랑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후 포주와 같은 남자에게 학대받으며 점차 타락의 길을 걷는 바결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의 스토리 라인은 위와 같이 요약된 1960년대 『명량』의 수기 스토리와 거의 동일하다.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작가가 그토록 한순간에 여인의 삶을 개괄해 내고 그것이 편집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물론 작가의 뛰어난 재능의 몫도 있었겠지만, 윤락 여성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토록 명확하게 축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1960년대 옐로 저널이 반복해서 실어 날랐던 타락한 여성의 서사는 이미 지식인의 세계에는 일정 이상의 무의식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이 1970년대의 청년 작가에게 그토록 쉽고 빠른 스토리라인 구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기본 스토리 라인에서 알 수 있듯,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부분 윤락 여성, 혹은 타락한 여성들이다. 발간 당시부터 『명량』은 마담, 창녀 등 윤락가의 여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수기는 이와 같은 ‘집 밖’ 여성들의 삶에 서사적 세부를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세계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집 밖’ 여성들의 사연은 윤락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동정의 정서를 자극하고 감성적 접근을 고무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여성들은 나쁜 남자들과 최초의 경험을 가진다. 이

65) 최인호, 『작가의 말』, 『별들의 고향』, 샘터, 1994.



남자들은 얼굴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과 첫 관계를 맺은 최초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인물이며 이후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지 거의 감추어져 있다. 이웃집 대학생, 집주인 아저씨, 하숙생, 친구 오빠, 회사 동료나 상사 등 이들은 갖가지 계층과 연령에서 출현하지만, 주인공을 유혹하고 한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후 곧바로 사라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온갖 계층에서 나타나는 이 남자들은 그 누구의 얼굴과도 교환될 수 있는 익명성을 지님으로써 보편적인 남성성의 어두운 일면을 '구상'한다. 그들은 앞에서 본 성 과학 칼럼에서와 같이, 여성을 욕망하고, 욕망하지만 순결하지 않은 여성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편의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때때로 주인공 여성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별다른 이유나 두드러진 사연 없이 사라져 버린다. “내가 언제 너에게 결혼하겠단 말을 하거나 했나!”<sup>66)</sup>라든가, “연애란 두 사람 다 공평하게 책임을 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요”<sup>67)</sup>라는 것이 그들이 사라지며 남기는 대답이다. 과렴치한 첫 남자들의 태도는 연애 자유의 풍토가 여성들에게 씌워준 이중의 굴레를 가시화한다. 연애 자유의 이념과 성 개방의 풍문은 사랑에 부가되는 결혼의 책임으로부터 남성들을 풀어주는 대신, 여성들에게 성 행동의 책임을 전가하는 삶의 질곡을 빚어냈던 것이다. 여성은 연애의 실천을 위해 전통의 관습에 저항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랑의 책임까지 홀로 담당해야 했다.

최초의 경험 후 여성은 타락 일로의 길을 걷는다. 타락의 길은 거의 정해져 있다. 다방, 댄스홀, 요정, 창가 등등의 루트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런 여자들을 희롱하고 착취하는 또 다른 남자들이 존재한다. 한

66) 이호림 편, 『끝나지 않은 삼각관계』, 『명랑』, 1965.7, 226쪽.

67) “연애란 두 사람 다 공평하게 책임을 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요. 정자두 싫지는 않았고 또 즐거웠으니까. 뉘 와서 불평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내가 언제 정자 더러 결혼하잔 말 한 마디 하던가?”, 이호림 편, 『(체험수기 종합연구)여자가 될 무렵의 성전』, 『명랑』, 1965.6, 78쪽.

결같이 유사한 타락의 길들을 걷는 여주인공들의 역정은 ‘집 밖’의 여성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얼마나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었던가를 역설해 준다.

최인호의 소설이 그토록 쉽게 초안이 잡히고 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1960년대부터 뚜렷하게 구획되었던 집 ‘안’과 ‘밖’의 공간 인식에 의거한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집 밖’의 여자들을 갈취하는 남성 캐릭터 상은 오직 ‘상품’의 형식만이 여성들에게 가능한 존재방식이었음을 암시한다. ‘집 안’의 여성이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면 ‘집 밖’의 여성은 그들의 성을 갈취하는 남성들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 속에 놓인다는 점에서, 기실 여성은 어느 곳에 있는 상품이라는 데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집 밖’으로 나선 여성들은 남자들을 전전하는 가운데 순간적 쾌락을 알아가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쾌락의 삶에 몸을 실은 자신을 저주하는 원망과 죄의식에 휩싸여 있다.

(가) 이제는 남자들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여자서로는 너무나 가혹한 운명인, 이 빠걸이라는 이름. 무슨 전생의 죄와 업보가 있어 나이도 많지 않은 제가 빠걸이라는 밤의 여인에게까지 전락하게 되었는지 하늘을 원망하고 싶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싶습니다.<sup>68)</sup>

(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데 이렇게 이 남자에서 저 남자로 파리처럼 옮겨 앉기만 하는 저의 생리와 저의 세월은 어떠한 것으로 언제 끝날지 그날이 솔직히 말해서 무섭습니다. (...) 이제는 의무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모든 남성들에게 복수심도 없어지고 오직 리듬 위에서 밤을 지내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지기만 합니다.<sup>69)</sup>

(다) 경거망동으로 집안을 망치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암흑으로 이끌

68) 박승희, 『울며 삼킨 첫사랑』, 『명랑』, 1965.7, 194쪽.

69) 송희란, 『의부에게 유린당한 복수로』, 『명랑』, 1965.7, 201쪽.

어 들인 꽤잔한 한 사람의 가냘픈 여인의 호소입니다. / 행여 저 같은 경우의 과오를 또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하겠다는 많은 여성들에 대한 제 솔직한 고백수기(告白手記)입니다. / 저는 말하자면 분수에도 맞지 않는 허황된 일을 저지르고 드디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좋은 표본이 되는 경우의 여인입니다.<sup>70)</sup>

(라) 내가 저질은 이 엄청나고 큰 죄값을 하기엔 죽음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 하늘이 노오래도 나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sup>71)</sup>

(가), (나)의 주인공은 바 겐과 댄스홀의 무희이다. (가)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때 안면 있는 대학생과 사귀게 된 후 지속적으로 육체관계를 맺다가 임신 후 버림받고, 회사 과장, ‘빠 주인’ 등등에게 희롱당하다가 ‘빠 겐’로 전락했다. (나)의 무희는 의부에게 강간당하고 집을 나온 후 친구집에 의탁하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댄스홀의 무희가 되어 남성들을 유혹하고 정복하는 생활을 전전한다. (다), (라)의 주인공은 탈선한 유부녀들이다. (다)는 계 모임, 댄스홀, 도박장 등등을 전전하다 이혼당하고 명동의 다방 마담이 된 여인의 사연이며, (라)는 남편의 육촌이 되는 하숙생과 관계를 하다가 그와 함께 집을 나왔으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자살을 결심했던 여인의 역정이다.

(가), (나)의 미혼녀들은 첫 남자 이후 “어떤 때는 남자라는 것과 세상이 싫어지면서도 혼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남자가 아쉬워져서 못 견디겠는”<sup>72)</sup> 욕망의 주인공으로 변신한다. (나)의 무희는 특히 “저의 육체까지 알고 간 사람이면 더욱 못 잊어 늘상 제 곁에서 살기를 원”<sup>73)</sup>한다고 토

70) 홍영미, 『변화가를 휩쓴 어느 여인상』, 『명랑』, 1965.6, 134쪽.

71) 한미정, 『인생에 실패한 여인의 수기2: 더러운 얼굴로 돌아보라』, 『명랑』, 1966.1, 328쪽.

72) 박승희, 앞의 글, 195쪽.

73) 송희란, 앞의 글, 200쪽.

로하는 요부형 여성이다. 유부녀의 경우는 처음부터 “일체의 모랄을 무시”<sup>74)</sup>한 순간적 쾌락에 빠져들어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희와 욕망에 유약한 이 여성들은 쉽게 쾌락에 굴복하고 성에 빠져드는 요부요 마녀들인 것이다.

그런데 ‘불미스런’ 욕망의 세계에 빠져든 이 요부들이 동질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는 후회와 죄의식이다. “하늘을 원망하고 싶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후회,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지기만” 하는 자기 연민, “죄 값을 하기엔” 죽음도 너무 간단하게 느껴지는 뉘우침이 이들이 보여주는 지배적 정서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을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 남성들을 원망하거나, 현재 자신들을 유린하고 있는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친구의 핍에 빠져 강간을 당하고 이후 흥등가를 전전하게 된 매매춘 여성도 결국 모든 것이 자신의 ‘허영 탓’이라고 고백한다. 스스로를 단죄하는 태도를 통해 서사는 여성의 욕망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담론과 결속한다. 여성의 쾌락이란 파멸과 직결되며, 때문에 ‘집 밖’의 세계는 죄악과 후회로 얼룩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욕망과 파멸의 서사는 여성들에게는 성 행동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하는 한편, 남성에게는 그런 여자의 타락은 그 여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즐겨도 좋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했다. 여성의 쾌락이 필멸할 수밖에 없는 요부들의 비정상적 욕망으로 간주될 때, 집 밖에서 구현되는 남성들의 성적 향유는 죄인들에 대한 배설 행위로서 죄의식을 탕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즐기는 남성 판타지를 정당화함으로써, 여성의 성 욕망과 파멸을 연동하는 서사의 클리셰는, 가부장적 체제를 옹호하면서도 집 밖의 성을 즐길 수 있는 윤리적 위선을 가능하게 했다. 남성이 자신의 성을 가정 내에 가두지 않으면서도 가부장의 도덕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

74) 한미정, 앞의 글, 326쪽.

이처럼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담론 구조 속에서, 망가진 여성들의 수기는 슬픔과 죄의식에 휩싸인 여성 고백의 형식을 띠고 남성들의 관음적 욕망을 부추기는 데 활용되었다. 수기는 많은 경우 최초의 일탈(혹은 성 경험) 장면을 아슬아슬하게 그려냈다. 수기의 아슬아슬한 성 묘사는 묘사의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된 만큼 여성이 지각하는 감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박 준보씨는 강한 힘으로 나의 몸을 이불 속에 끌어넣었다. 『숨털처럼 부드러운 살결!』 어느새 그는 나의 스카트 자끄를 끌르기 시작했다. 거절하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것만 같았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서웠다. 그는 나의 목덜미에서 가슴, 배까지 키스의 소낙비를 퍼부었다.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교양 있는 여자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박 준보씨의 몸이 나의 위에 밀착하고, 나는 허벅부에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정열이 나의 몸에 여지없이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아픔이 그의 사랑의 표시 같기만 하였다.<sup>75)</sup>

『김씨, 가지마. 나를 위해서..... 응?』 / 뜨거운 입김이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김씨의 손이 어느 틈엔지 내 가슴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 나는 가볍게 저항을 했습니다. / 『김씨..... 이러지 마. 응? 나 못써. 이러면 못써』 그러나 나도 모릅니다. 내 치마는 어느 새 벗겨져 있었습니다. / 이윽고 나는 남편보다도 갑절이나 무거운 김씨의 체중을 몸에 느끼며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sup>76)</sup>

75) 이호림 편, 『끝나지 않는 삼각관계』, 『명랑』, 1965.7, 225-226쪽.

76) 『간통,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비극, 실패한 여인의 수기1 : 그 얼굴에 침을 뱉아라』, 1966.1, 322쪽.

짜릿한 전류가 가벼운 아픔과 더불어 온몸을 전달되어 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손보다 더 크고 억센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 손이 잠옷 밑으로 내 보드라운 종아리를 마음껏 주무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내 다리는 차츰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한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은 어느 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 현구의 손이 다시 빨리 움직였습니다. 나는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위로.. 그러나 현구의 손은 내 무릎 위를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위로...』<sup>77)</sup>

여성 화자의 관점에서 회고되는 첫 성 관계의 장면은 여성이 느끼는 감각들을 짜릿하고 세밀하게 짚어냄으로써 여성의 은밀한 감각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세밀한 묘사들은 읽는 자와 읽히는 자 사이에 일종의 유사 성관계를 조성해냄으로써 마치 한 편의 포르노그래피를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빚어냈다. 여기서 성 묘사는 세 층위의 담론 효과 속에서 진행된다. 읽는 자의 성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첫째라면, 앞서와 같은 담론 구조를 지닌 스토리의 공감대를 통해 남성의 죄의식을 상쇄하는 것이 둘째이며, 그와 더불어 여성의 경계의식을 작동하는 것이 세 번째 효과이다. 중층적인 담론 효과 속에서 무수한 여인들의 다양한 사연과 이야기들은 이 한 순간의 묘사를 즐기기 위해 소모되었다. 다양한 수기들을 가로지르는 동질적인 서사의 구도는 이처럼 남성적 쾌락의 향유와 죄의식의 상쇄, 여성들의 경계의식 발현을 위해 면밀하게 고안된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기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와 같은 서사들은 죄의식을 상쇄하는 쾌락의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가짜 경험에 가까웠다. 『명랑』의 수기들이 위조된 혐의는 이 잡지가 동일한 스토리를 반복해서 써 먹었다는 데에서 뚜렷이 확인된다. 1960년대 수기들 가운데 가장 성 묘사가

77) 한미정, 위의 글, 326쪽.

길게 진행되고 있는 수기는 위에 인용된 (라) 즉, 한미정(가명)의 「더러운 얼굴로 돌아보라」(1966.1)였다. 이 수기는 1971년 12월 박정자라는 가명으로 실린 「그 옷에 침을 뱉어라」라는 수기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된다. 박정자의 수기는 감기로 누워 있다가 간호해 주던 남편의 육촌 동생 벌 되는 하숙생과 불륜에 빠지는 장면으로 진행되는데, 전반부는 한미정의 수기와 동일한 스토리가 진행되고, 가출 이후의 파멸을 다루는 후반부에는 1966년 1월의 다른 수기 「그 얼굴에 침을 뱉아라」의 스토리가 차용되었다. 두 편의 수기를 엮어서 새로운 한 편을 만든 셈이다. 또, 택시 운전사에게 불의의 강간을 당하고 현장에 동석했던 친구에게 애인을 뺏기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과거」(주명훈, 1966.1)라는 제목의 수기는, 1972년 1월 「제로와의 대화, 이런 경우 당신이라면」이라는 다른 제목과 다른 가명(임미자)으로 다시 실린다. 1965년 발간본들에서는 독자의 수기 중에 문제적인 것을 손질했다는 부기를 달고 아예 작가가 수기를 재구성했다. 소설의 형식으로 실감나게 편집한 이 수기에서는 성 묘사가 더욱 아슬아슬하고 실감나게 전개되었다.

동일한 스토리를 재탕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짜깁기해 붙이는 수기의 편집 방식은 『명랑』의 수기들이 사실적인 체험담이기보다는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허구에 더 가까웠음을 암시한다. 결국 수기의 이름으로 발표된 여성들의 사연들은 실제 여성들의 삶 이전에 편집자의 시선으로 조직되어 일정한 담론효과를 자아내도록 구성된 인위적 고안물인 것이다.

수기를 조직하는 편집자 시선의 성격은 잡지에 첨가된 삽화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림 1】은 요정의 마담, 【그림 2】는 댄스홀 무희, 【그림 3】은 타락한 여사무원들의 수기에 부기된 삽화들이다.<sup>78)</sup>

78) 이미지들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 「오개월생 접대부라오」, 『명랑』, 1965.7. 192-193쪽 ; 【그림 2】 : 「의부에게 유린당한 복수로」, 『명랑』, 1965.7. 199쪽 ; 【그림 3】 : 「여자가 될 무렵의 성전」, 『명랑』, 1965.6. 77쪽 ; 【그림 4】 : 「영화계에 선봉을 일으킬 두 감독」, 1968.12. 109쪽 ; 【그림 5】 : 「핑크무우드

【그림 2】와 같이, 수기는 눈을 가린 여인의 실사 사진을 첨부함으로써 스토리의 사실성을 강화하는 편집전략을 취했지만, 이 사진들이 실제 수기의 주인공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앙에 있는 여인들의 주위로 배치된 둥구는 남녀의 형상들은 이 여인들의 뒷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 준다. 성관계의 묘사를 배후로 전경화되어 있는 여인들은 【그림 1】과 같이 눈을 내리 뜬 다소곳한 표정으로 앉아 있거나,<sup>79)</sup> 【그림 2】와 같이 도발적인 표정으로 남성을 바라본다. 전자가 “독자의 시선에 가까이 소유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의 우월감과 소유 욕망을 충족”시킨다면,<sup>80)</sup> 후자의 도발적인 시선은 허부의 둥구는 남녀 형상과 포개지면서 독자의 정복 욕망을 충동질했다. 수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면에서도 『명랑』은 이 같은 시선의 배치를 자주 이용했다. 【그림 3】, 【그림 4】에서 보듯, 신체를 노출한 여성들은 자신을 덮쳐 줄 남성을 기다리는 듯한 유혹적인 표정으로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응시하고, 남녀의 정사 장면은 여성의 표정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치된다(【그림 5】).

면밀하게 고안된 ‘집 밖’의 여성들의 이미지는 가정 내 여성의 이미지와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그림 6】에서 또렷이 알 수 있듯 가정 내의 여성들은 탈성화된 형상으로 그려졌다. 1960년대 가족 담론의 보수화 정도를 고려하면, ‘집 안’의 여성들의 탈성화와 ‘집 밖’ 여성들의 과장된

미스터리, 월궁의 마녀들], 『명랑』, 1968.7. 178-179 ; 【그림 6】 『행복한 부부 7 개조』, 『명랑』, 1968.12, 77쪽.

79) 부끄러워하고 가리고 싶어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가려진 부분을 들춰보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관음증적 욕망에 호소한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시선을 통해 여성을 지배하고 종속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학중에 입각한 서사구조와 연동된다. 정소영, 『포르노, 전시되는 몸과 창조하는 몸』, 52쪽. ; 주유신,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성적 주체성: 페미니스트 포르노 논쟁과 두 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6호, 한국영화학회, 309쪽 참조.

80) 유지나는 에로 영화에서 눈을 아래로 뜬 여인들의 포스터가 이와 같이 면밀하게 고안된 시선 배치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여성 몸의 장르: 근대화의 상처 -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유지나, 조흠 외,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 나무, 2004.



섹슈얼리티는 서로를 보완하는 보족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포르노그래피적 서사와 이미지 배치는 당대 남성들의 판타지가 여성 육체를 투사하여 만들어낸 섹슈얼리티를 과잉된 볼거리로 재현해낸다. 그리고 이 허구적 스펙터클의 세계가 빚어낸 공동의 스토리 라인들은 1960년대 대중들이 여성 욕망에 대한 일종의 서사적 클리셰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황색 잡지는 이러한 공동의 이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비공식적 공식의 영역으로 기능했다.

성과 사랑의 판타지를 이처럼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배치하는 문화의 압력 속에서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했다.<sup>81)</sup> 여성

은 거세된 존재여아만 욕망의 대상으로서 체제 내부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때문에 여성 자신의 섹슈얼리티는 숭고한 가정 외부의 영역에서 과잉이나 잉여의 형태로 조직되고 재현되었다. 집 밖의 욕망과 섹슈얼리티의 존재는 근대의 압력 속에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의 감각을 들추어내는 위반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황색 저널은 남근 중심으로 위계화된 담론 구조를 집 밖의 성에도 동질적으로 복사함으로써 근대라는 지식 권력의 통제 영역을 오히려 확장했다. 한 쪽의 성을 확대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통해 황색 잡지는 남성 주체들이 육체와 정신의 긴장을 이완하고 자아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했다. 따라서 공식적 체제 밖에 존재했던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논의는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고 저항하기보다는 체제 내적 권력의 힘을 오히려 강화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섹슈얼리티의 위반성은 차이와 구별을 통해 구축된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1960년대 황색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규범과 질서라는 동일성의 체계를 오히려 공고화하는 데 복무한 셈이다. 그 안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해부되었지만 진정한 여성성에 가 닿기보다는 남근 중심적 필터에 의해 조직되고 구성될 뿐이었다. 남성의 시각 속에서 걸러지고 조각된 경험의 표백 속에서 여성들이 지녔던 경험과 의식의 상징적 무게는 드러날 수 없었다. 여성의 성이 더 많이 탐사되고 말해질수록 여성의 진정한 경험과 삶의 무게는 오히려 감추어지고 침묵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주도 아래서, ‘경계 밖의 성’의 시대는 ‘조국 근대화’의 압력 아래 성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근대화의 빛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된 삶의 영역으로서 어둡고 가혹한 삶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갔다. 산업화의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할수록 계급간의 격차가 심화

81) 여성 욕망을 파멸과 직결시키는 서사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욕망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배제하고 거부한다. 유희자에 대한 원망 없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초월적 태도로 유희에 빠졌던 자기 자신만을 저주하는 타락한 여성들의 서사에서와 같이, 여성은 타락의 길에서조차 ‘숭고’의 외피를 입어야 했다.

되고 고착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가족과 음성적 성의 영역 또한 또렷한 위계구조로 사회 속에 고착화되어 갔다. 1970년대 『별들의 고향』의 성공은 이처럼 위계화되고 버려진 삶의 영역에 대한 대중의 자의식이 비로소 표면화된 결과였던 셈이다.

## 5. 나오며

여성의 성에 대한 삶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더욱 충동질하는 1960년대 황색 저널의 서사구조와 지면 구성은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전 국가적 압력 속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남성 주체들의 소외와 압박에 비례하여 가속화되었다. '본성'이라는 과학과 '자유'라는 근대의 논리는 집 안의 성을 규제했던 것과 동일한 사유 체제를 통해 집 밖의 성을 소비할 수 있는 담론 구조를 마련했다. 황색 저널의 음성적 섹슈얼리티 문화는 근대적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면서도 근대 가족 내부의 차이와 위계를 그대로 복사하고 유지함으로써 체제의 안팎을 횡단하는 가부장적 사고 체제를 확장하고 재생산했다. 여성의 성을 탐닉하고 소비하는 데서 남성 주체들이 소외의 압박을 해소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황색 저널은 근대 지식 권력의 통제 영역을 확장했다. 황색 저널의 독자들은 체제 밖의 어둠과 그늘을 소비하는 판타지적 쾌락 속에서도 계획되고 법칙화된 동질성의 순환 고리 속에 스스로의 육체와 정신을 조직할 수 있었던 셈이다.

제도 밖의 성을 탐닉하는 문화의 성장은 개발독재의 가속화와 맥을 같이 하는 파생물의 하나였으며, 표면적인 저항에 나설 수 없게 된 대중들의 선택이기도 했다. 4.19 직후 건전하고 건설적인 내용으로 선회했던 『명랑』의 재 원색화가 가속화된 1960년대 중반은 한일 굴욕 외교에 저항하며 일어났던 반정부 시위가 비상계엄령, 휴교 조치 등 일련의 강제 하에 저지되고, 강력한 국가 주도적 개발 압력이 시작된 시기였다. 개인의

삶이 국가주의적 이념의 압력 하에 동질적인 방식으로 규율화되고 정치적 발언이 억제되는 상황에서, 대중들이 감지하는 근대화의 압박은 저급 독물을 즐기는 데 따르는 불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위압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조건에서 경계 밖의 섹슈얼리티는 대중들이 제도가 부과하는 통제의 압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균열된 틈으로 기능했다. 국가주의적 제도와 규율의 압력 속에서 황색 저널의 독자들은 공식 사회에서의 가면을 벗은 벌거벗은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했고, 섹슈얼리티는 그와 같은 실제에의 욕망이 빠져들기 용이한 인간의 가려진 ‘진실’이었다. 그러나 황색 잡지의 섹슈얼리티는 메울 수 없는 본원적 결핍과의 공존을 건디는 어려움을 감당하기보다는 한 성이 다른 성을 제압하고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손쉬운 만족을 얻는 데로 치달아갔다.

‘순수’하고 ‘윤리’적인 가족 이념이 강력하게 안착했던 1960년대에, 성차에 대한 불평등한 통념과 가학적인 탐닉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방대한 규모의 음성적인 세계를 확산시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 학생, 저임금 노동자 등 소외 계층의 독물로 치부하며 스스로 그 독자임을 부정했던 저 엘리트 독자들의 위선에서 드러나듯, 공식 세계의 억압과 불합리를 용인하는 약자는 역으로 비공식 세계의 또 다른 억압과 불합리 속에서 타자를 남용하고 착취하는 데서 자아의 우월감을 회복했다. 드러내어 말하기 어려운 은폐된 세계에서 기형적인 방식으로 우월감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 만큼 당대 체제가 상식과 양심의 차원에서 충분히 동의하고 협력하기 어려운 불합리의 세계였음을 입증해 주기도 한다. 현실 논리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불행을 젠더 논리로 치환하여 자신을 치유하는 정체성 회복의 매커니즘은 다시금 젠더의 불균등한 시선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사로잡고 얼마나 쉽게 억압과 고통을 전이하고 배설하는 데 이용되는가를 깨닫게 한다.

섹슈얼리티란 합리적 이성과 규율을 통해 확립된 근대 주체를 위협하는 타자성의 영역이다.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문화적으로 주조된 주체가 끝끝내 이해하고 동일화하지 못하는 지대로 섹슈얼리티는 주변화되어 있

다. 때문에 섹슈얼리티는 안전하게 내부를 형성하고 그 외의 것들에 경계를 그음으로써 자신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주체에게 불안과 동요의 틈을 만든다. 때문에 섹슈얼리티에 대한 천착은 때때로 일시적이지만 상징계가 구멍나고 뜯어지는 순간을 드러내며 상징계 안에 숨어 있는 다름의 가능성이 노출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옐로 저널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차이를 통한 균열보다는 동질적 회로의 반복에 주력했다. '본성'의 이름으로 본질화하고 위계화된 담론 구조 속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노골적으로 초점화되고 자세하게 추적되었지만, 더 많이 묘파되고 언급될수록 진정한 여성 섹슈얼리티는 더욱 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 참고문헌

### 1. 자료

『명랑』 1960-1973년 현전본(국립중앙도서관)

### 2. 단행본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2.

여성문화연구회, 『여원연구: 여성, 교양, 매체』, 국학자료원, 2008.

최인호, 『작가의 말』, 『별들의 고향』, 샘터, 1994.

린 헌트, 조한욱 역, 『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책세상, 1996.

### 3. 논문

김석, 「여성의 몸과 불가능한 주이상스」, 몸문화연구소 편, 『포르노 이슈』, 그린비, 2013, 154-183쪽.

김연숙, 「대중잡지 『명랑』을 통해 본 전후 개인관계의 서사 - 1950년대 후반 '독자사교란' 기획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16, 39-69쪽.

-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현대문학의 연구』 32,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339-375쪽.
-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8호, 생각의나무, 1999, 79-100쪽.
- 김종갑, 『실재를 향한 열정으로서의 포르노』, 몸문화연구소 편, 『포르노이슈』, 그린비, 2013, 96-120쪽.
-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여성문학연구』, 여성문학학회, 2017, 57-104쪽.
- \_\_\_\_\_, 『1950년대 잡지 『명랑』의 “성”과 “연애” 표상: 기사, 화보, 유머란(1956~1959)을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2, 173-206쪽.
- \_\_\_\_\_, 『‘명랑성’의 시대적 변이와 문화정치학: 통속오락잡지 『명랑』의 명랑소설(1956년-1973년)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78, 민족어문학회, 2016, 217-268쪽.
- 김현주, 『1950년대 오락잡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판타지와 문화정치학: 『명랑』의 성애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13, 83-116쪽.
-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호, 상허학회, 2011, 187-226쪽.
- 유지나, 『여성 몸의 장르: 근대화의 상처 -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유지나, 조흡 외, 『한국영화 섹슈얼리티를 만나다』, 생각의 나무, 2004.
- 이나영, 『포르노그래피, 억압과 해방의 이분법을 넘어』, 김종갑 외, 『포르노이슈』, 몸문화연구소 엮음, 그린비, 2013.
- 이우영, 『포르노그래피의 사회적 의미』, 『현상과 인식』 22(1·2),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8, 25-41쪽.
- 이주라, 『음란 소녀 탄생기 - 1960년대 대중 잡지 『명랑』과 하이틴 소설』, 『대중서사연구』, 대중서사학회, 2018, 439-477쪽.

- 임유경, 『지식인과 잡지 문화』, 김성보 외 편,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60년대』, 창비, 2016, 83-110쪽.
- 임중수·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91-136쪽.
-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142-181쪽.
- 주유신, 『포르노그래피와 여성의 성적 주체성 - 페미니스트 포르노 논쟁과 두 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6호, 한국영화학회, 2005, 397-424쪽.
- 최경희, 『196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교양의 레짐’ 연구: 『가정생활』, 『여상』, 『여원』에 나타난 전통, 국민, 감정의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8, 우리문학회, 2015, 89-112쪽.
- \_\_\_\_\_,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 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 『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313-331쪽.
- 최애순, 『1950년대 활자매체 『명랑』 ‘스토리’의 공유성과 명랑공동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241-262쪽.

## Abstract

### Sexuality over the Boundaries and Extension of Modern Knowledge Power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Sexuality in the Korean Yellow Journal of the 1960s

Kim, Chi-young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Korean Yellow Journal *Myeong-lang*(*Gaiety*) commodified sexuality and analyzes the discourse structure of sexuality of the Journal in the 1960s. In the 1960s, focused on sexuality outside family system, *Myeong-nang* pursued profits by seeking after a sexuality commercialization strategy that prompted the public's curiosity about sex using such kind of articles including an affair, a prostitution, a premarital and extramarital affairs. *Myeong-lang* printed actively the Western trend of sexuality where signs of sexual openness regarded as evident. With deliberate misuse of Western examples such as the Kinsey report, together with deliberate misappropriation of the gender openness as a universal fact, *Myeong-lang* defined contemporary Korean society as a sex liberation one based on the Western model. Sexual articles in the journal had taken the form of discourse of education that male intellectuals uttered to female readers, and made sexuality of woman a subject of discipline. Articles on sex science in the journal defined male sex as a possessive and aggressive "sad instinct," and the journal justified the contradictory sexual desire of male who desired both a virginity and a preoccupation relation with a woman. *Myeong-lang* extended



the control of knowledge power outside of the family system with hierarchizing the sex difference by educating the sex of the woman as the sex that should conform to the desire of the male. In such a discourse structure, the magazine's sexual science accelerated the pornographic desire to see the reality of sexuality by searching for sexuality to the stage of contraction and expansion of muscle. By this way, the sexuality of a woman was typified and objectified in the overflow of sexual discourse. The women's memoirs of the magazine, illuminating a woman's life of the prostitution zone in the society, repeated similar stories in a homogeneous circuit binding women's desires with corruptions. These handwritings, which had a clear trail of editorship, proceeded in a careful arrangement of gaze to encourage men's curiosity and desire. The rapidly developing narrative had functioned as a sexual surrogate by expanding the scene of extramarital affairs. In the homogeneous narrative structure that satisfied the desire of pleasure while offsetting the guilt of men, the women's memoirs of *Myeong-lang* served to extend the control range of the knowledge power that constituted modernity. As the overflow of sexuality accelerated, the true experience and desire of women had to be deeply covered and silenced.

Key words : Sexuality, Sexual discourse, Yellow journalism, Femininity, Memoirs, Sex science, The 1960s, Modernity, Sexual role, Feminism.

■ 본 논문은 2018년 11월 22일에 접수되어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